

악보가 눈앞에 닥쳐, 중국공산당 공안부 부부장 리동성이 기소 당해

[밍 후이왕](밍후이 기자 하우 보도) 중국 최고 검찰원 사이트는 2015 년 8 월 21 일, 전 중국공산당 공안부 부부장 리동성이 ‘수뢰 사건’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리동성이 징벌을 당하게 된 것은 물론 중국 공산당 내부 암투에서 패배해 초래된 것이긴 하지만 근본 원인은 그가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업보이다.

리동성은 2013 년 12 월 20 일 면직을 당했는데 중국공산당 관방에서는 처음으로 그가 ‘610’ 사무실 주임이라는 은밀한 직함을 폭로했다. ‘610’ 사무실은 장쩌민 집단이 1999 년 6 월 10 일에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만든 불법적인 조직으로 전국 당, 정, 군 계통에 분포되어 법률과 헌법 위에 군림하여 지난 16 년 동안 수많은 살인 사건, 상해안건에 대해 벗어날 수 없는 죄책이 있다.

리동성은 중앙텔레비전 방송국(CCTV) 부국장 신분으로 중앙 ‘610’ 사무실



사진: ‘천안문 분신자살’ 세기 거짓안건 언론매체 획책자 리동성이 낙마되다

부주임을 맡고 파룬궁에 대한 비방 먹칠과 세뇌 선전을 책임졌다. 1999 년 7 월 박해가 시작되자 그는 CCTV 를 조종해 날마다 7 시간 순환으로 파룬궁 창시자에 대한 모함을 포함한 ‘1400 예’ 등이 들어있는 조작 뉴스를 방송했다. 그가 주도한 ‘초점방담(焦點訪談)’은 6 년 반 동안 황금시간 대에 102 편의 파룬궁 비방 프로그램(그 중 박해 초기 5 달 만에 70 편 방송)을 방송했다. 리동성은 직접 이 거짓말 프로그램의 주요 구상, 조직과 최종 심사를 맡았다. 매일 ‘뉴스 연합방송’을 45 분으로 연장해 하늘땅을 뒤덮을 듯한 기세로 비방 선전해 파룬궁에 대한 중국인들의 증오를 선동했다. 이런 모독 비방은 또 중국공산당 대외의 신화사, 중국신문사, 중통사와 해외 중국공산당 언론 및 대사관 등 기구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인심을 잃은 이번 박해를 지속하기 위해 장쩌민의 지령을 받고, 쟁칭훙, 뤼간, 리동성은 공동으로 2001 년 설 달그믐에 ‘천안문 분신자살’가짜 연극을 만들어 냈고, 리

동성이 CCTV 를 조종해 제 1 시간에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실황을 연이어 재방송했고 아울러 해외에도 방송해 한때 수 억 명을 속였다. 하지만 CCTV 초점방담 프로그램은 허점투성이였고 조작 촬영했음이 분명했다. 기만극은 재빨리 폭로돼 초점방담도 ‘초점황담(焦點謊談: ‘황’은 거짓말이라는 뜻)’이라 불리게 됐다.

리동성은 파룬궁을 비방한 공로로 재빨리 방송 TV 총국 부국장, 중앙선전부 부부장으로 승진했고, 2009 년에는 류징 대신 중앙 ‘610 사무실’ 주임이 됐다. 아무런 공안 경력도 없는 이 거짓말 대변인은 이후에 또 저우융캉에 의해 공안부에 부부장으로 임명돼 붓대와 총대를 양 손에 틀어 찜으로써 장쩌민 집단의 파룬궁 박해 주요 줄개가 됐다.

리동성이 정식 기소를 당한 것은 박해 두목 장쩌민 등 박해 원흉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정신병원과 노동교양소, 감옥에서 구타를 받은 주희옥이 장쩌민을 고소 (간략)

(밍후이왕 통신원 길림성보도) 61 세인 연변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주희옥은 길림성 여자감옥에서 4 년 동안의 박해를 받고 몇 달 전에 집으로 돌아오자 바로 2015 년 8 월 5 일에 ‘형사고소장’을 최고인민검찰원에 발송했는데 이미 최고검찰원에서 수령하고 사인을 했다.

주희옥은 박해원흉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했기에 그는 37 차례나 납치당했다고 고소했다. 그 중 정신병원에서 2 차례 박해 받았고, 세뇌반에서 5 차례 박

해 받았으며, 진달래광장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현수막을 펼치거나 혹은 연공을 했다는 이유로 25 차례 정도 납치당했다. 노동교양 박해를 3 차례나 (5 차례 노동교양소에 보내졌으나 2 번은 받지 않아 돌아왔음)받았다. 또 4 년 불법 판결을 받고 길림성 여자감옥에서 받은 혹형 박해에 대해 고소했다. 주희옥은 최고검찰원에서 장쩌민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주희옥이 서술한 박해 사실이다.

1. 대법을 수련하여 병을 제거하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

1998 년 말 나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지탱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담결석증이 발작 할 때면 진짜 죽을 것만 같았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 1999 년부터 나는 파룬궁을 수련했는데 처음에는 이 책에 담은 글들이 모두 정말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좋은 길이 없었기에 파룬궁을 수련하기로 결심했다.

파룬궁수련을 시작한 후, 나도 모르게 나는 더욱 선량해 졌고, 더욱 진실해 졌으며, 더욱 다른 사람을 관용 할 수 있게 변했다. 예전에 내가 추구한 것은 바로 명리였는데 수련 후 모두 내려놓았다. 나의 직업은 회계지만 작가를 갈망한 나는 시간만 있으면 책보기를 즐겼다. 또 개건지 작가 학습반에도 참가하여 노력한 끝에 마침내 간단한 조선말 소설과 수필을 발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좋지 않은 습관이 양성됐는데 특히 사당의 '교육'으로 진실한 말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과장해 말하기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왜곡까지 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진실한 말의 중요성도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이렇게 해야만 이름을 날릴 수 있고, '재질'이 뛰어나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가정에서도 늘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신체 좋은 언니와 동생더러 하게 했다. 파룬궁 책을 본 후에야 나는 병의 근원과 재난의 원인을 알게 되어 자신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때로부터 나는 진실한 말만 했고 다른 사람보다 일도 더 했다. 잘못을 찾아 고칠 때마다, 자신의 좋지 않은 사상을 버릴 때마다 나의 병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사부님의 말씀은 모두 정말이라는 것을 믿은 후 과거에 한 일들을 생각하면 진짜 무서워 났다. 지옥에 들어간 후에는 후회해도 이미 늦기 때문이다. 수련한 후 비록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하기 어려워서 시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았지만 후에는 이것이 바로 사부님께서 안배한 것이며 내가 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능히 기꺼이 일체 시달림을 이겨낼 수 있었다. 시달림을 이겨내면 심성도 승화될 수 있어 나는 무척 기뻐했다.

현재 나는 이미 환갑이다. 2014 년 6 월부터 감옥의 그토록 가혹한 환경에서 나는 틀니도 쓰지 못했고(노동교양 박해 때 이빨이 맞아 빠지거나 잘못 되어 의치를 했음) 생활용품도 살수 없었고 손에는 쇠고랑을 채워넣었다. 그러나 나는 파룬궁수련을 견지했기 때문에 몸 상태는 좋았다. 나는 매번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라고 외쳤고, 여러 번 단식으로 박해에 항이 했으며, 고난을 겪을 때마다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손에 쇠고랑을 채웠을 때 심장이 불편해 나고, 혈압이 올라갔지만 내가 마음을 담담히 하자 사부님께서 대법제자가 해야 할 일체를 계속 할 수 있게 가장 좋은 안배를 해주셔서 나의 신체는 기적으로 회복이 빨랐다. 교관과 범인들도 나의 신체 변화를 보고 모두 놀랐다

2.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각종 박해를 받다

1999 년 7 월 20 일 이후, 장쩌민은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발동했다.



사진: 2005년 7월 18일 아침, 주희옥은 연길시 진달래광장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향해 "파룬따파하오"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 주희옥이 받은 일부분 고문시연



16 년 이래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고문을 받았다. 장쩌민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민심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차례 불법적인 납치와 노동교양 박해를 받다.

2001 년 6 월 29 일, 하남파출소 (뒷면에 계속)

(앞면의 계속)

지역경찰 김철호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리는 편지를 보낸 이유로 납치돼 불법적인 1년 노동교양을 받았다. 그때 나는 잔혹하게 구타를 당했는데 이빨도 부러졌다.

2001년 8월 1일부터 2002년 7월 8일까지, 길림성 헤이쭈이쯔(黑嘴子) 여자 노동교양소에서 박해 받았고, 10일이나 연기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노동교양소에서 이른바 보증서와 결렬서 등을 쓰지 않았기에 6 대대에서 수면박탈을 당했고, 욕과 구타를 당했다. 부대대장 주단은 나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수감자인 훈련 받은 군의 리쑤원을 사주해 나의 겨드랑이 부위의 혈을 마구 찔렀는데 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이다. 역시 수감자인 추이싱나(崔星那)도 나를 구타했고, 강박적으로 나의 손을 잡아당겨 손도장을 찍고는 나를 전향시켰다고 떠들어댔기에 나는 2일간 단식으로 항의했다.

6 대대에서 4 대대로 넘어온 후에도 나는 자신의 청백을 주장하고 노동교양을 거절하고 이름표를 달지 않았기에 교관 왕징은 여러 번 나를 호되게 때렸다. 일을 하지 않는다 하여 장수화는 전기곤봉으로 나의 전신을 3번 충격했다. 한번은 장구이메이, 왕징, 장씨 등 몇 명의 경찰이 동시에 전기곤봉으로 나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2002년 5월 13일부터 내가 단식을 한다고 관웨이와 몇 명 경찰은 또 동시에 여러 개 전기곤봉으로 나를 충격했고, 개구기 등으로 나의 입을 열고 음식물을 강압적으로 주입했다. 이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이다. 매번 이렇게 음식물 주입을 당하고 나면 피를 토하고, 숨쉬기도 힘들었으며, 입은 웃은 몽땅 젖었다.

2003년 9월 1일, 나는 진달래광장에서 연공을 했다는 이유로 하남 파출소 지역경찰 왕신넌 등 경찰에게 납치됐다. 왕신넌은 수감으로 나의 손을 걸상에 채워 고정해 놓고 10여 시간이나 있게 했으며 저녁 당직 경찰은 나의 얼굴을 때려 얼굴이 형편없이 부어 올랐다. 이튿날, 시 '610'경찰이 나를 8층으로 끌고 가더니 16시간이나 쇠고랑으로 허공에 매달아놓았다. 먼저 3시간은 수감으로

나의 왼쪽 손을 위에 고정하고 오른손은 옆으로 묶어 놓고 두 발은 허공에 드리우게 했다. 3시간 후에야 화장실로 가게 했는데 나는 고통스러워 변기에 있는 더러운 물을 손으로 마구 퍼서 마셨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 계속 매달아 놓았는데 이번에는 수감으로 나의 오른쪽 손을 고정해놓고는 두 발은 역시 허공에 드리우게 했는데 이렇게 근 13시간을 달아매 놓았다. 그 고통을 언어로 형용할 수 없다. 2일간의 고문을 거쳐 나의 손은 부어 올랐고 손목에선 피가 흐르고 깊은 상처가 생겼는데 1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움푹 패어 들어간 흔적이 있다. 그 후 구치소에 16일간 감금되었다가 장춘 여자 노동교양소에 보내졌지만 노동교양소에서 받지 않아 9월 18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2003년 11월 4일, 진달래 광장에서 연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또 장춘 헤이쭈이쯔 여자 노동교양소에 보내져 아주 잔혹한 고문을 받았다. 내가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 한다 하여 침대에 45일간 고정해 놓았고, 어떤 때는 등 뒤로 두 손에 수갑을 채운 후 머리, 두발과 함께 묶어놓았다.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러웠다. '사인 침대(死人床)'에도 5일 좌우 묶여 있었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야만적인 음식물주입으로 이빨 여러 대 부러졌다. 10번 이상 전기곤봉 충격을 받았으며 전기충격으로 살에 삼각형 흉터가 생겼고 시멘트 바닥에서 끌고 다녀 엉덩이가 피투성이 되고, 뒤 잔등엔 피 자국이 생겼으며 교관 왕주평이 발로 차서 이빨 한대가 부러졌다. 나는 2004년 12월 3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2 차례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박해 받다

제 1 차는 2005년 5월 11일, 시 정부의 압력에 나의 직장에서는 나를 끌고 강제로 뇌과병원(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정신병 치료를 하였다. 불명약물 주사를 놓고, 강박으로 음식물 주입을 하였으며, 침대에 묶어 놓았다. 주사를 맞은 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났다. 5월 18일 집에 돌아 온 다음 직장에서는 약값 1400여 원, 한 끼 밥도 먹지 않았는데 밥값으로 282원까지 합계 1800여 원을 나의 장부에서 공제하려 했지만 단위가 파산되는 바람에 몇 백 원 밖

에 공제 하지 못했다.

제 2 차는 2011년 3월 3일, 또 다시 정신병원에 끌려가 많은 불명약물 주사를 맞고 3월 10일에 풀려났다.

5 차례 세뇌반에서 박해 받다

2002년 11월 4일, 2011년 3월 31일, 2011년 6월 4일, 2011년 6월 22일, 2002년 6월 27일, 모두 5번 세뇌반에 납치당했다.

길림성 여자감옥에서 당한 고문과 시달림

2011년 7월 4일, 나는 진달래광장에서 연공을 하던 중 정보과의 정철수 등 여러 사람에게 게 납치돼 연공할 때 입은 웃만 입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감옥에 끌려갔다. 감옥에서 형사범인 차이칭, 천하이옌이 나를 감시했는데, 차이칭은 매일 나를 때리고 나의 입을 봉했다. 5일부터는 나를 침대에 묶었는데 4개 끈으로 사지를 4개 방향으로 침대에 묶고, 밤낮을 모두 묶어 놓았고, 그들이 기분 좋을 때면 풀어주어 좀 활동하게 했다. 처음에는 소변을 침대에서 받았고, 후에는 화장실에 가는 걸 허용했지만 자신들이 기분이 좋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아 침대에서 보았다.

7월 5일 오후, 형사범 양후이는 나를 달아냈다. 양후이는 2층으로 된 침대에다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한 후 4개 끈으로 나의 손목과 발목을 각각 묶은 다음 4개의 쇠기둥 중간에 고정해 허공에 드리우게 했다. 이튿날 오전에 또 다시 달아냈는데 손발이 마비되고, 떨리고, 심장이 답답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웠다.

대략 7월 16일, 차이칭, 천하이옌, 추이송화, 류위평 4명 형사범은 나를 기는 형태로 허공에 달아냈는데 나의 손목은 자색으로 변했고, 감각을 잃었다. 나는 녹색 담즙을 토했으며 풀어줄 때에 또 담즙을 토하고 그 담즙 위에 정신을 잃고 쓸어졌다. 이때 니씨 대장이 이른바 한 무리 '방교단(幫教團)'을 거느리고 나를 찾아 왔지만 나는 말할 수가 없었다. 하루가 지난 후 또 형사범을 사주해 나를 2층으로 된 침대에 묶어 허공에 드리우게 했다. 내가 조금도 굴복하지 않자 형사범이 "우리는 1분도 견지 못하겠다."라고 말했고, 차이칭은 "주희옥, 너는 진짜 강하다."라고 말했다. (뒷면에 계속)

(앞면의 계속) 하루는 나를 바닥 중간에 앉게 하고는 오른손과 오른발을 오른쪽 침대에 묶어놓고, 왼발과 왼손은 왼쪽침대에 묶어 놓고 코에 꽂은 주입식 호스를 머리에 고정하고는 그들도 한편으로는 밥을 먹으면서 나에게 음식물을 주입 했는데 나는 우로 토하고, 아래 싸고 하였다. 그들은 ‘더러워도 우리는 상관없다’고 했다. 후에 소대 학습위원이 와서 나의 온몸에 꼬집은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돌려보냈다.

7월 달이었다. 저녁이면 나의 사지를 더욱 꽁꽁 묶었다. 매일 손은 찢빵처럼 부어났는데 낮에는 나더러 손을 쳐들고 있으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부은 손이 많이 내렸지만 저녁이면 계속 힘껏 묶었기에 결국 나의 손은 여전히 많이 부어 있었다. 어떤 때에는 낮에도 손과 발을 몸 뒤로 하고 끈으로 함께 묶어놓고 2, 3시간씩 있게 했는데 아주 고통스러웠다. 또 형사범을 사주해 나의 두 손을 교차해 2층 침대 쇠기둥 중심에 고정해 달아매 놓고 역시 두 다리도 교차해 그 쇠기둥에 달아매 놓았다. 하지만 나는 사부님의 가지를 받아 잠이 들 수 있었다. 리쉐나는 발로 나의 목을 밟았는데 나의 입에서는 ‘과, 과’하는 오리울음 소리 같은 소리가 새나왔다. 리쉐나는 ‘주희옥은 굴복시킬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사주 받은 형사범은 ‘우리는 몇 분도 지탱하지 못하겠다.’ 고했다.

사주 받은 감시자들은 늘 나의 사지를 침대에 달아매 놓았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측면으로 묶는 것이다. 즉 왼발과 오른손을 각기 힘껏 당겨서 오른쪽 고정 대에 묶어 놓고, 왼손을 힘껏 당겨 왼쪽 고정 대 중간 위치에 묶어놓고 고정한다. 다음 오른발을 힘껏 당겨 왼쪽 아래 고정 대에 묶어 놓는다. 리쉐나는 이렇게 하면 보통 한 시간도 견디하기 힘들다고 했다. 나는 이런 고문을 5 일 밤 동안을 당했다. 형사범 장옌메이는 2 일 동안 음식물 주입을 못하게 했고, 새벽 1 시나 2 시가 되어야 이불을 덮어 줬다

2011년 12월부터 내가 사부님께 절을 했다는 이유로 나를 5층에 감금하고 매일 호되게 때렸다. 형사범을 부를 때 ‘보고!’라고 외치라고 했지만 내가 완강하게 듣지 않자 그들은 나를 호되게 구타했다.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항의하자 그들은 수건으로 나

의 입을 막았다. 5층에서는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 혹은 12시까지 꼼짝 못하고 쪽걸상에 앉아있게 했는데 나의 엉덩이에는 모두 멍이 들었다. 특히 ‘따순리(大顺利)’쪽걸상 중간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구멍 앞부분에 앉아있게 하면서 조금만 들어앉으면 발로 찼다. 형사범들은 저녁에 당번을 서고 낮이면 잤다.

5층에서 4일 동안 화장실로 보내지 않았다. 대, 소변을 바지에 보아 솜뭉들이 모두 젖어 몸에서는 구린내가 심하게 났다. 내가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가고 물으니, 모를 수가 있는가? 라고 대답하는 그들도 불만이 있는 태도였다. 나의 신체도 끝내 더는 지탱하지 못하고 감옥 병원에 입원했는데 2012년 5월 17일에 입원해서 2013년 2월 23일 새 감옥으로 이사할 때에야 돌아왔다. 그때로부터 교육감시구역에서 형사범 감시자(包夹, 바오자)는 더욱 엄하게 감시했고 그때마다 나는 계속 노래를 불러 항의 했다. 천잉잉이 나를 교관사무실로 불렀고, 판잉(潘英)이 나를 교관 화장실로 끌고 가서 호되게 때렸다. 나는 그 어떤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파룬따파 요구대로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했을 뿐이다.

2013년 7월 21일, 장옌메이는 감시 카메라 앞에서, 이미 전향된 사람들 앞에서 실내화를 벗어 나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면서 “봐라, 너의 얼굴이 뼈뿔어졌다”라고 소리쳤다. 장옌메이는 사람을 때리려고 자원해 들어왔다. 그가 예전에는 감시자(包夹, 바오자)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자청해 온 것이다. 그는 큰소리로 “어떤 정신병이던 다 치료 할 수 있다”라고 고함쳤다. 나는 매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라고 외쳤는데 그 날에는 “장옌메이가 나를 때린다”고 더해 외쳤고 교관들도 들었다. 2013년 7월 23일, 411새 감방이 생겼다. 이 새 감방의 감시자들은 모두 ‘능수’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가만히 알려 주었다.

나는 411 감방에 옮겨 갔다. 나는 장옌메이가 사람을 때리는 5 가지 수단을 알게 됐다. (1) 경상적으로 하던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는 것, (2) 7월 21일 나를 때린 것처럼 실내화로 때리는 것, (3) 화장실에서 머리를 벽에 쪼아대기. (4) 가장 악랄한 것은 땀땀한신을 신고 여성의 음부를 차는 것. 악인들은 매일 나를 차고 때렸는데 마지

막에는 음부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땀땀한 것이 생겨 후에는 때려도 덜 아팠으며 그 땀땀한 것이 2년 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5) 사람을 강박해 자신이 자신을 때리게 하는 것이다.

나는 2014년 3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411 감방에서 고박 53일간 수갑을 차고 박해 받았다. 이유는 내가 이름을 부를 때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라고 외쳤는데 그때 한 파룬궁수련생이 따라서 ‘진선인 하오(真善忍好)’라고 외쳤기에 나에게 더욱 심한 박해를 했다.◇

자비로 거듭 권고하거늘 남 따라 죄를 짓지 말라

악인이 현장에서 급사해 베이징 팡산구 세뇌반이 해체되다

[밍후이왕] 2015년 8월 27일, 북경시 팡산구 세뇌반의 소위 ‘교육하는’ 사람 탕바오화(唐寶華)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려고 하다가 심근경색이 발작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놀란 세뇌반 사람들은 다 달아났고 세뇌반은 해체됐다.

세 뇌반은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주요 수단으로써 1999년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중단한 적이 없다. 각지 ‘610’ 불법 행위자들은 ‘법제교육’이란 간판을 들고 불법적으로 세뇌반을 설립했다. 그들은 현지 파룬궁수련생과 노동교양소와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한 후 본의 아니게 태도를 밝히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소위 ‘전향’을 시켰다.

북경시 팡산(房山)구 세뇌반의 악인은 언녕 악보받은 실례가 있다. 주요 두목인 귀지구이는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귀지구이의 악행은 가족에게도 연루돼 그의 아내는 유방암에 걸려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됐다.

공범자 쑤바오옌(孫保艷), 장위링(張玉玲)도 보응을 받아 뇌출혈과 중풍에 걸렸다.

선 악에는 언제나 응보가 따르기 마련이다. 단지 일찍 오는가 늦게 오는가 하는 것뿐이다. 역사를 쭉 훑어보면 바른 믿음을 박해한 집권자가 성공한 적이 없다. 오히려 모두 호된 하늘의 징벌을 받아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